

농 촌 잠 언

박 훈 서(목사, 충북 충주 야촌교회)

▶ 가을 무우 껍질이 두꺼우면 겨울에 춥다.

추워지는 날씨에 민감한 것이 곤충이나 들짐승들이나 식물들이다. 무우의 껍질이 두껍게 형성되는 것은 추운 날씨에 미리 대비하는 식물의 끈질긴 생명력을 나타낸 것이다. 농사의 경험에서 앞날의 날씨를 예측한 농부들의 슬기를 읽을 수 있다.

▶ 가을에는 손톱 발톱이 다 먹는다.

가을 추수기에 일은 많은데 일손은 부족하고, 힘들게 일을 하다보니 손톱과 발톱이 다 닳아진다는 말이다.

▶ 가을판에는 대부인(大夫人)마님도 나막신 짝을 들고나선다.

평소에 일하지 않는 신분 높은 사람도 가을철 일 많은 때에는 일터에 뛰어든다는 말이다.

▶ 그슬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 타령한다.

처지가 더 나쁜 상태에 있으면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을 비

꼬는 말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 7:3)

▶ 김 매는데 주인(主人)이 아흔 아홉 몫 맨다.

아무리 일 잘하는 샅군이나,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어 힘든 김매는 일을 해도 주인 자신의 열심히 일하는 것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이다.

▶ 깊던 물이라도 알아지면 오던 고기도 아니 온다.

깊은 물은 고기가 살기에 적당한 공간과 먹이를 제공하지만 얕아진 물은 그럴 수 없다. 사람들도 깊고 덕이 많은 사람에게 모이는데 그 덕의 깊이가 알아지면 오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뜸해지기 마련이다. 인격의 깊이가 깊을수록 많은 사람을 포용하여 큰일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잠 19:22)

▶ 낙락장송도 그 근본은 씨앗이다

크고 거대한 나무도 그 근본은 작은 씨앗이다. 종자의 소중함과 더불어 종자의 신중한 선택이 미래의 좋은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한 말이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마 13:31-32)